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76차 수요시위 발언문

'30돌 수요시위' 휘방이 웬말이냐! 극우단체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모욕을 멈춰라!

지난 1월 30주년을 맞은 수요시위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시위, 세계에서 가장 슬픈 시위라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가해자인 일본의 합당한 사과를 받아내고자 하는 할머니들과 시민들의 염원이 이끌어낸 결과다. 2015년 진행된 '한일위안부합의' 라는 말도 안 되는 외교에도, 2020년 5월부터 이어진 극우단체들의 수요집회 장소 강탈에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할머니들과 시민들은 매주 소녀상 앞으로 나선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이며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격살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가해국인 일본은 피해자들에 대해 아직 아무런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할머니들은 14살에 끌려가 90살이 넘었는데 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는 외침을 무시하며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버티고 앉은 형국이다. 일본이 뻔뻔스러운 것이야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지금의 수요시위는 새로운 방해세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름마저 모욕적인 '위안부사기청산연대' 라는 극우단체가 얼마 전 이곳 초량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시위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성이 없었고,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게 구걸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며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의 주역들이 '한일정책협의단'으로 파견된 것도 모자라, 자국민이라는 이들이 나서서 수요집회 장소를 강탈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없던 것처럼 취급하였다. 그들에게 묻는다. 대체 어떤 알량한 선민의식으로 피해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국민에게 해를 가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30년이나 같은 시위가 열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다. 가해국은 전쟁범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역사 교과서 개정을 감행하며 자신들의 만행을 일축하고, 자국민이란 이들은 극우의 탈을 쓰고 수요시위의 정신과 소녀상의 의미를 훼손하였다. 사기꾼은 수요시위도 피해자 할머니들도 아닌 전쟁범죄를 일으킨 일본이다. 하루 빨리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극우단체의 고의적 집회 휘방을 멈추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4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